



언론 보도 자료

즉시 배포용:
2023년 9월 29일

연락처:
James Yu (OHR) - (202) 227-1681; james.yu1@dc.gov

2023년 10월 1일부터 DC 인권법에 따라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는 가사근로자

*DC 인권 사무국(OHR)은 이제 민원을 접수함으로써 고용 보호를
보장합니다*

(워싱턴 DC) - 2023년 10월 1일부터 가사근로자는 [2022년 가사근로자 고용 권리 개정법\(Domestic Workers Employment Rights Amendment Act of 2022, ‘법’\)](#)이 통과됨에 따라 [DC 인권법\(DC Human Rights Act, DCHRA\)](#)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됩니다. 해당 법은 DC의 모든 가사근로자가 다른 업계의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, 근무 중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끼는 가사근로자는 DC [인권 사무국\(Office of Human Rights, OHR\)](#)에 차별에 대한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가사근로자는 개인의 거주지에서 보상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용인으로 정의됩니다. 가사근로자에는 유모와 같이 정기적으로 재택 보육을 제공하는 사람, 간호 또는 기타 재택 보조원 등 고령자 간호 담당, 청소 서비스, 요리 또는 음식 준비 및 기타 가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. 해당 정의에서는 가족 구성원, 건축이나 배관 등 집 수리 작업을 하는 사람, 반려동물 돌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비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.

해당 법은 가정에서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고용인의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고용에 적용되는 [18가지 보호 대상 기준](#)을 토대로 가사근로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. 차별 행위에는 특정 개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, 성적 학대 및 [OHR](#)에 불만을 제기한 데 대한 보복 등 근로자를 적대적인 작업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.

DCHRA는 모든 고용인에게 DCHRA에 따른 피고용인 권리에 관한 통지문을 게시하도록 규정합니다. 개인 거주지에는 해당 통지문을 게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용인은 통지문 게시하는 대신 가사근로자에게 통지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OHR의 평등 고용 기회(Equal Employment Opportunity, EEO) 포스터는 [여기](#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새로운 가사근로자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[여기](#)에서 리소스를 확인하십시오.

###

컬럼비아 특별구 인권 사무국(OHR) 소개

컬럼비아 특별구 인권 사무국(District of Columbia Office of Human Rights , OHR)은 차별을 근절하고 평등한 기회를 증진하며 컬럼비아 특별구에 거주, 근무 또는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. 이 기관은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DC 인권법을 포함한 지역 및 연방 인권법을 집행합니다. OHR은 또한 차별 가능성이 있는 관행 및 정책을 파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국장 질의(Director's Inquiries)를 통해 DC에서 인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집행합니다.

팔로우해 주십시오:

